

[새 사상 새 로정 인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새 장 열자



9월 20일, 섬서성 서안시에서 열린 제8회 실크로드국제박람회에서 이란 전시상이 관중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 신화넷

올해는 습근평 총서기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제기한 두번째 황금 10년의 첫해이다. 올 들어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모멘트(朋友圈)가 갈수록 커지고 함급량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고품질 발전에서 세계에 복지를 가져다주는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공동 구축하는 웅장한 화폭을 펼쳐놓았다.

최근 중국산 자동차 등 상품들이 뻬루 찬카이항(钱凯港)에 도착했다. 이와 동시에 뻬루의 블루베리(蓝莓), 아보카도(牛油果) 등 특산물도 중국 시장으로 수송되고 있다.

일전 습근평 총서기는 뻬루 대통령 볼루알트와 함께 리마 대통령부에서 화상 방식으로 찬카이항 개항식에 참석했다. 뻬루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80키로메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찬카이항은 중국과 뻬루가 ‘일대일로’를 공동건설하는 중점 프로젝트이다. 이 항구가 개통되면 중국과 뻬루간의 편도 해상운송 시간을 23일로 단축하고 물류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며 뻬루에서 해마다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라틴아메리카 방문 기간 습근평 총서기는 브라질 대통령 룰라와 함께 중국과 브라질 관계를 ‘손잡고 보다 공정한 세계와 보다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구축하는 중국과 브라질 운명공동체’로 격상시킨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구상과 브라질의 발전 전략을 접목시켜 지속 가능 발전, 기초시설, 금융, 에너지 전환, 우주비행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제협력 구도가 라틴 아메리카지역에서 전면 전개됐음을 의미한다.

2013년 가을, 습근평 총서기는 까자흐스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선호하여 ‘비단의 길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공동건설을 위한 중대한 창의를 제기했다. 10여년간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를 3차례 주재해서부터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문단을 3차례 개최하기까지,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항유의 원칙을 확립하고 개방, 친환경, 청렴 리념을 견지하고 고표준으로 민생에 혜택을 주는 지속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로부터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지지하는 8가지 행동을 선포하기까지 습근평 총서기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대해 최상위 설계를 하고 전략을 세우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부단히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다.

올해 지방 시찰에서 총서기는 각지

에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거듭 부탁했다. 연해지역에서는 자유무역구의 련동 혁신을 힘써 추진하고 제도형 개방시범구를 잘 건설해야 한다. 서부지역에서는 서부 육로 해상 신통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연선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추진시켜야 한다. 여러 중요한 국제 장소에서 총서기는 각국과 손잡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내실을 다지며 경제무역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연결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창도와 포지하에 ‘일대일로’ 국제협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줄기차게 발전하면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라오스 철도, 웅그리아—세르비아 철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등 일련의 대표적 프로젝트가 잇달아 건설되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힘입어 말디브는 최초의 해상 횡단다리를 갖게 되었고 세네갈 가뭄지역 주민들은 보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방글라데슈의 파드마 바레이촌은 전기가 없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 같은 대표적 프로젝트와 실리를 가져다주는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각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독일국제철도화물협회 회장 :

중국—유럽 화물열차, 유럽련맹 무역 촉진



9월 24일, 선적 대기중인 화물이 준비한 독일 두이스부르그항.

/ 신화넷

“효율적인 교통 연결은 중국과 유럽련맹간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심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독일국제철도화물협회 회장 올라프 크루거는 일전 이같이 말하며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중국과 유럽련맹간 경제협력의 주추들로서 산업에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크루거는 10만번째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조만간 독일 두이스부르그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교량으로 부상한 화물열차가 무역·공급 사슬 효율성 향상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철도운송이 중국과 유럽련맹 국가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철도운송은 실크로드 특히 긴급 화물에 널리 활용됐다.” 크루거의 말이다.

그는 “유럽 기업이 공급사슬 최적화

올해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부단히 심화되고 내실을 다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애급, 나이지리아 등 여러 나라와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계획을 체결했다. 이미 150여개 국가, 30여개 국제기구와 함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문서 200여건을 체결했다. 올해 중국과 유럽간 까스빠해 횡단 직통 급속이 공식 개통되면서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연결하고 까스빠해를 횡단하는 새로운 운송 통로가 건설되었다. 10갈래 ‘비단의 길 해운’ 항로가 새로 개통되면서 46개 국가와 지역의 145개 항구에 직접 닿을 수 있게 되었다. ‘공중 비단의 길’도 갈수록 넓어져 항로가 전세계 200여개 도시를 아우르고 있다. 중국—유럽 열차는 운행 편수가 루게로 10만편을 넘었으며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했다.

‘일대일로’ 인문 교류의 화폭도 부단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올해 중국은 아프리카에 ‘로반공방’ 10곳을 건설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우리 나라가 전세계 30개 국가와 협력해 공동건설한 ‘로반공방’ 34곳은 이미 협력 대상국을 위해 대량의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했다.

올해 우리 나라와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의 무역과 투자 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되었다. 첫 10개월 동안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 대한 우리 나라의 수출입 규모는 16조 9,400억 원으로 6.2% 증가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서 국내 업체가 새로 건설한 도급공사 계약액은 1조원을 넘어 17.1%의 성장폭을 이루었다.

오늘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각국에 공동번영의 길을 개척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방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고 서부지역은 개방의 ‘말초’에서 개방의 최전선으로 바뀌었다. 올해 전 3분기 서부지역의 대외무역 수출입 규모는 3조여원에 이르러 동기 대비 8.9% 성장하고 성장 속도는 각 지역의 첫자리를 차지했다.

새로운 로정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세계와 손잡고 대화협상, 공동건설, 공동항유, 협력상생, 교류와 상호 참조의 비단의 길 시대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면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캄보자 학자 :

‘일대일로’ 창의, 공동번영 비전 실현의 핵심



2023년 11월 16일, 캄보자 시엠펙 앙코르 국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 신화넷

캄보자의 국제공공정책 전문가가 중국의 ‘일대일로’ 창의를 높이 평가했다.

최근 캄보자 프놈뻬 왕립대학교 국제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퐁 뎡데빗은 중국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전략적 연계와 상호 보안을 중시하고 캄보자 ‘펜타곤(五角) 전략’ 및 ‘아세안 상호연결 총체적 계획 2025’ 등과 유기적으로 융합해 평화발전, 상생협력, 공동번영의 공동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퐁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일방적인 비전을 강요하거나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가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강점을 상호 보완해 공동의 리익을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안에서 캄보자내 다양한 중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는 캄보자 인프라 건설,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프놈 뻬—시아누크빌 고속도로는 캄보자 최초의 고속도로로 수도 프놈뻬에서 시아누크항까지의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무역·물류·관광업 발전을 촉진시켰다. 또 다른 중점 프로젝트인 시엠펙 앙코르 국제공항은 캄보자 관광 및 물류 산업 촉진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퐁은 이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캄보자의 투자유치, 생산성 및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표에 부합되고 산업·경제 다원화에 도움이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캄보자와 아세안 나이가 글로벌 시간간의 관계를 강화해 캄보자가 지역 가치사슬에서 경쟁력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 신화넷

중국—파키스탄 유일 육로통상구, 상시 개방

홍치라푸(红其拉甫)통상구 해관에 따르면 중국과 파키스탄의 유일한 육로통상구인 신강위글자치구 홍치라푸통상구가 1일부터 계절적 개방에서 상시 개방으로 전환되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핵심지에 있는 홍치라푸통상구는 높은 해발과 추운 기후로 인해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만 개방하고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폐쇄돼왔다.

한편 올 4월 1일 이후 홍치라푸통상구의 출입경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이미 5만여명(연인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치라푸해관을 통한 출입경 차량도 10월 말 기준 1만 1,000대(연대수) 이상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2.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 화물량은 4만 900톤으로 72.7% 늘었다.

/ 신화넷

아프리카 33개국 등 최빈국에 무관세 대우

중국은 12월 1일부터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최빈국의 100% 세목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적용하고 있다. 발전도상 대국이자 세계 주요 경제체로서 해당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다.

중국과 아프리카 인구는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농업은 아프리카 기간산업의 하나이다. 최근 수년간 베넌 파이네플, 에티오피아 커피, 르완다 고추, 꼬뜨디와르

캐슈너트(腰果) 등 우수한 아프리카 농산물이 관세 면제, 아프리카 농산물 수입 ‘록색통로’ 등 조치를 통해 중국 식탁에 오르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올 1월—8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농산물의 화물가치는 284억 7,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4.8% 늘어난 규모이다.

/ 신화넷

나이지리아 레키항과 자유무역지대



11월 30일,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레키항에서 화물차가 하역하고 있다.

/ 신화넷

중국항만공정유한책임회사가 건설한 레키항과 중국과 나이지리아가 합작하여 건설한 레키자유무역지대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라고스의 레키반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레키항은 나이지리아 첫 현대

식 심해항으로 연간 설계처리능력이 120만개 표준 컨테이너이다. 레키항 개항 이래 레키자유무역지대내의 기업들은 레키항을 통해 수출입 화물량을 대폭 증가시켰고 광호한 물류생태를 건설하였다.

/ 신화넷